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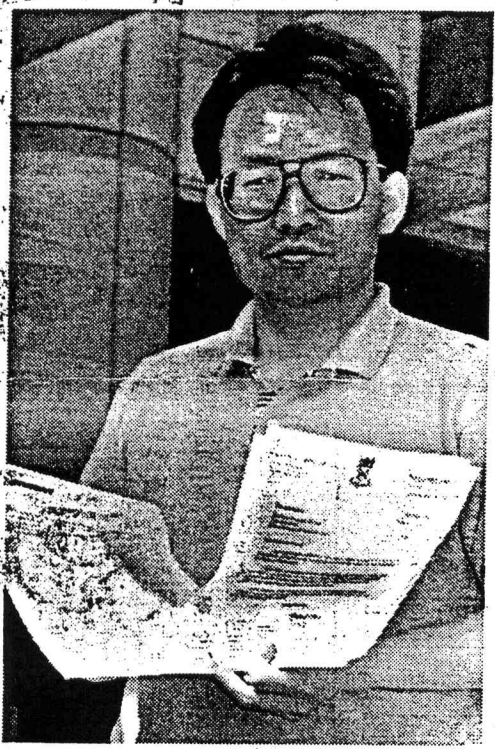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成大 95년 수학II 7번문제

대입수학시험문제로 루시비가 2면의 문제를 보면서 문제적인 틀을 깨지 못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학원현황은 교수의 승진 및 임용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시시비비로 이어지고 있다.

15점 배정의 수학II 7번 문제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문항이 “정사각형 ABCD의 변의 길이가 1인 점 E, F는 각각 변 BC, CD의 중점이다. 선분 EF를 연장하여 변 AB를 교차하는 점을 구하라.”

이 문제가 수학적으로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1인 점 E, F는 각각 변 BC, CD의 중점이다. 선분 EF를 연장하여 변 AB를 교차하는 점을 구하라.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金明浩씨가 논쟁이 되고 있는 입시문항의 수학적 접근을 추구하는 외국수학자들의 서한을 들고 서 있다. <李建昊기자>

을 무장정벌 수가 없다. 『대입문제 오류』를 주장한 김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학 II 7번 문제를 출제했던 교육청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김교수는 “정사각형 ABCD의 변의 길이가 1인 점 E, F는 각각 변 BC, CD의 중점이다. 선분 EF를 연장하여 변 AB를 교차하는 점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점 발견 金明浩교수 등점주장서 발단
학문적 진위 안가린채 ‘괘씸죄 해고’ 의혹
소장학자들 金교수 지지... 국제문제 비화

과학교육원 韓建昊 교수 등 44명 1면 88명의 원이 수학교수들의 「대입수학II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냈다. 이후 김교수 학회(전) 회장 김명환(전)은 「수학 문제점 발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대 김명환(부총장)은 “김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교육청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김교수는 “정사각형 ABCD의 변의 길이가 1인 점 E, F는 각각 변 BC, CD의 중점이다. 선분 EF를 연장하여 변 AB를 교차하는 점을 구하라.”라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 문제는 수학적으로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